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난 ‘환상성’과 ‘소문’ 모티프 연구

김영미*

— || 차례 || —

- I. 서론
- II. 〈우렁각시〉 설화 개관
- III. 설화에 나타난 환상성과 시간 금기의 의미
- IV. 설화 속에 숨겨진 ‘소문’ 화소 분석
- V. 맺음말

【국문초록】

〈우렁각시〉 설화에는 이물교혼(異物交婚), 변신, 금기와 위반 등 다양한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금기와 위반 서사 속에 포진된 ‘환상성’과 ‘소문’을 분석해 보았다. 〈우렁각시〉 설화는 표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특징적이다. 하나는 시간성을 담보로 한 금기 화소이다. 금기 화소가 등장하는 다른 설화들을 보면, 대개 ‘뒤돌아보지 마라’나 ‘열지 마라’ 등의 행동적 금기가 일반적이는데, 〈우렁각시〉 설화에서는 ‘시간을 기다려 달라’는 시간적 상징이 드러난다. 이는 이물(異物)인 ‘우렁이’에서 완전한 인간인 ‘각시’로 변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렁각시〉 설화가 유난히 환상적인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변신 모티프에 나타나는 기법적 환상성과 우렁각시 자체가 지니고 환상성, 주인공인 우렁각시와 총각의 결연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설화 대중들의 낭만적 판타지가 환상성을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환상성’이 〈우렁각시〉 설화의 표면적 특징이라면, 〈우렁각시〉 설화의 내포적 특징은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서사의 바탕에 ‘소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우렁이는 애초 눈에 숨어 있다가 총각에게 발견된 뒤로 집의 ‘장농’ 속에 숨겨진다. 총각이 우렁이가 예쁜 각시로 변하는 것을 ‘몰래’ 본 이후 총각과 함께 살게 되면서 집안에 숨겨진다. ‘숨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은밀하게 관계를 맺고 싶다는 심리의 반영인데 이것이 바로 소문의 근원적인 속성이며, 소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소문이란 숨기는 뭔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곤 하는데 이때 소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감추거나 아니면 호기심 주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우렁각시>에서 총각은 우렁각시가 아직 ‘우렁이’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황이라 숨길 수밖에 없는 한편, 우렁각시는 그 자체로 서기(瑞氣)를 뿜어내 외부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이다. 완벽하게 숨길 수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소문 발생의 조건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각의 어머니와 우렁각시의 모습을 그린 화상(畫像)은 소문을 촉발하는 매개가 된다. 결국 감추고 싶어 하면 싶어 할수록 우렁각시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되어 임금이나 감사, 혹은 원님 등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우렁각시> 후반부 서사는 ‘소문’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본고는 <우렁각시> 설화를 대상으로 금기와 위반 서사 속에 포진된 ‘환상성’과 ‘소문’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그동안 <우렁각시> 설화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소문’의 화소를 찾아내고 그것의 서사적 의미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주제어: 우렁각시, 금기와 위반, 시간 금기, 결연, 변신, 환상성, 서기(瑞氣), 소문

I. 서론

<우렁각시> 설화에는 이물교혼(異物交婚), 변신, 금기와 위반 등 다양한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다. <우렁각시> 설화와 비슷한 모티프가 차용되어 결연과 금기의 모티프가 서사의 중핵 화소로 작동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렁각시>를 포함하여 <작제건과 저민의> 이야기, <나무꾼과 선녀>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설화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사람과 이물(異物)이 교혼한다는 것이다. 인간 총각이 우렁이와 결연하고 사람인 작제군이 서해 용녀인 저민지와 결연하였으며 나무꾼이 천상의 선녀와, 뱀 신랑이 셋째 딸과 결연하는 것이다.¹⁾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설화들 모두 변신과 금기 모티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금기란 신성한 것을 보호하고,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무엇인가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민중적 장치이다. 설화나 소설 속의 금기 화소는 서사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서사 자체가 금기와 금기 위반, 그리고 금기 위반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때 금기의 내용과 금기의 위반 주체가 누구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에 언급한 설화들은, <구렁덩덩 신선비>를 제외하면, 변신의 주체는 여성이며 금기 위반의 주체는 남성이다.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는 이와 반대로 변신의 주체가 남성이고 금기 위반의 주체가 여성인 점에서 나머지 설화들과 결이 다르다. 금기는 주체의 욕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지만 금기나 금기 위반의 주체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난 금기 화소를 중심으로 설화 속 주체(총각)의 욕망을 분석하여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난 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금기는 그 자체로 주체의 욕망과 관련될뿐더러 금기의 위반 역시 우회적으로 주체의 욕망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금기 위반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이물교혼담은 주인공의 신이한 행적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작제군 설화가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이물교혼담은 세속화되면서 서사적 흥미 유발의 장치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우렁각시> 설화에는 일반적인 ‘금기-금기 위반’의 서사 속에 ‘환상성’과 ‘소문’이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렁각시> 서사 속에 포진된 ‘환상성’과 ‘소문’의 모티프를 분석함으로써 <우렁각시> 설화를 좀 더 풍성하게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최종 목적이다.

지금까지 <우렁각시> 설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있는데 고전문학 쪽에서 다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설화의 서사구조 및 변이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도출해 낸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우렁각시> 설화에서 금기가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말, 즉 결연형으로 끝맺는 유형이 많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한 측면이 많다.²⁾ 둘째는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 설화와의 연관성과 그 영향 관계를 살핀 연구 유형들이다.³⁾ 셋째는 우렁각시 설화를 심리적이고 정신분석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내면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 연구들이다.⁴⁾ 한편 현대문학 쪽에서는 <우렁각시>나 <나무꾼과 선녀>의 설화적 모티프가 현대소설에 어떻게 변용·수용되었는지 살핀 일련의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모두 현대 문학작품을 중심에 놓고 각각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들이다.⁵⁾

-
- 2) 배도식, 「우렁각시 설화의 구조와 의미」, 『동남어문논집』 제23집, 2007, pp.29-70; 김중대, 「<우렁각시>에 나타난 옛보기의 의미와 이야기 전개와의 관련 양상」, 『어문론집』 제74집, 2018, pp.69-96; 유진아, 「우렁각시 설화의 결연형 증가와 세속화 양상」, 『동양고전연구』 제70집, 2018, pp.467-493.
- 3) 유형동, 「<우렁각시>와 <돌쇠와 우렁이각시>의 비교 고찰-북한 설화 이해를 위한 예비적 고찰」, 『어문논집』 제81집, 2020, pp.221-246; 안상훈, 「러시아 민담 <아름다운 아내>와 한국민담 <우렁각시>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제23집, 2010, pp.687-723; 박완호, 「우렁각시 고사를 통한 한·중 양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40집, 2008, pp.507-532.
- 4) 노계운,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 연구」, 『어문논집』 제57집, 2008, pp.5-39.

선행 연구들을 통해 <우렁각시> 설화의 유형 분류, 전승의식, 각 유형들이 지니는 의미를 추출하여 <우렁각시> 설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독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우렁각시> 설화 모티프를 활용한 현대문학 작품들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있는 선행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렁각시> 설화가 갖는 환상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낸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우렁각시> 설화의 변신 모티프를 차용한 현대소설의 ‘환상성’을 설명한 논문은 있지만⁶⁾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현대소설 작품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렁각시> 설화에 보이는 환상성과 그 의미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우렁각시> 설화는 비슷한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는 다른 설화에 비해 환상적인 색채가 농후한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밝혀낸다면 <우렁각시> 설화만의 변별성과 의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렁각시> 설화 밑면에 깔려있는 ‘소문’ 화소에 대해 선행 연구가 미비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실 구비전승성과 구술성을 매개로 한 고전문학에서 ‘소문’은 그 자체가 설화가 되기도 하고 소문이 변형 창작되어 야담이나 소설로 수용되기도 했다. 고전문학 작품에서 ‘소문’은 그 어떤 영역보다 중요한 구현성을 갖고 있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주제이다.⁷⁾ 특히

5) 박소영, 「「우렁각시」 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43집, 2014, pp.459-491; 김명석, 「현대소설에 나타난 이물교구 모티프의 수용양상」, 『우리문학연구』 제21집, 2007, pp.275-305; 송연주, 「현대소설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의 해체적 양상」,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39집, 2008, pp.339-363.

6) 송연주는 「여성소설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와 환상성 연구」(『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41집, 2008, pp.283-307)에서 한강의 「내 여자의 열매」, 오수연의 「벌레」, 송경아의 「나의 우렁충각 이야기」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와 환상성을 분석하고 있다.

7) 현재 ‘소문’은 그 시대적·사회적 중요성과 심리적 가치를 인식한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도 ‘소문’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한 연구들이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출현하였다. 고전문학 분야에서도 ‘소문’에 대한 몇몇 의미 있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고전문학

<우렁각시> 설화의 경우,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소문의 속성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야기 전반부에서는 숨겨야 하는 ‘우렁각시’ 존재 자체가 소문의 발생을 야기하고, 이야기가 확장되는 후반부에서는 ‘소문’이 서사를 추동하는 중요한 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렁각시> 설화 속에 보이는 ‘소문’의 속성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렁각시> 설화에서 ‘소문’으로 추동된 후반부 이야기는 전반부 내용에 비해 상당히 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문 자체가 지니는 사회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난 ‘환상성’, 그리고 ‘우렁이’ 존재 자체가 내재한 ‘소문’의 속성과 그 확산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설화 중에서 <우렁각시> 설화와 비슷하게 금기와 결연의 상관성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우렁각시> 설화의 환상성을 분석하는 데 비교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II. <우렁각시> 설화 개관

<우렁각시> 설화는 대체로 ‘우렁 색시’ 혹은 ‘고동 각시’, ‘고동 처녀’, ‘조개 각시’ 등으로 불리며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우렁각시> 설화

쪽의 ‘소문’ 관련 논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인혁의 「‘소문’과 배제의 윤리-〈銀愛傳〉을 대상으로」(『고소설연구』제44집, 2017), 이주영의 「〈포의교집〉의 ‘초옥 서사’ 구성 과정 연구-초옥에 관한 풍문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 제36집, 2017), 김영미의 「연암 박지원의 ‘소문’ 활용 양상 연구」(『한국언어문학』 제108집, 2019), 김영미의 「『강로전』의 서술양상과 소문 활용법」(『우리문학연구』 제66집, 2020) 등의 논문들이 ‘소문’을 주요 의제로 잡아 전체 서사 진행 방식부터 작게는 모티프 활용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각 편의 이야기들은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임석재전집) 및 『옛날이야기꾸러미』2(최인학·엄용희 편저, 집문당, 2003),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73) 등 설화집의 자료를 참고하였다.⁸⁾

먼저 기본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 총각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일은 해서 누구와 함께 먹나?”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 ② 총각은 “나랑 같이 먹지 누구랑 먹어”라고 대답하는 우렁이(고동, 붕어, 조개)를 발견한다.
- ③ 총각은 우렁이를 집에 가지고 와서 물독(항아리, 장농)에 보관한다.
- ④ 그날 이후 총각이 일을 하고 돌아와 보면 항상 잘 차린 밥상이 놓여 있다.
- 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총각이 몰래 지켜보다가 우렁이가 예쁜 여자로 변하는 것을 본다.
- ⑥ 총각이 함께 살자고 하자 우렁각시는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 ⑦ 총각은 기다리지 못하고 떼를 써서 우렁각시와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우렁각시> 설화는 우렁각시와 총각의 단순 결합을 기본형으로 하는데, 절대적 가난으로 결혼도 하지 못한 총각이 집안일도 푹푹딱딱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화수분처럼 알아서 척척 끼니도 챙기고, 게다가 예쁘기까지 한 우렁각시를 만나 결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기에 따라 설화 첫 부분에 총각이 ‘홀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고, 어머니의 존재가 전면에서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우렁이’는 ‘고

8) 『한국구비문학대계』(1980년대 조사 자료) 소재 <우렁각시> 설화는 전라북도 편에 집중적으로 많은데, 주로 전라북도 편 자료들을 참고했으며, 초창기 <우렁각시> 설화 채록본은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평민사, 권수별로 출간 연도는 다름)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오는 <우렁각시> 설화 전체 자료 목록은 유진아(앞의 논문, pp. 476-477)의 논문 참조.

동, 봉어, 조개’ 등 다른 이물로 표현되기도 하며 우렁이를 집에 가져온 총각이 우렁이를 보관하는 곳 역시 ‘농, 독, 항아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렁이가 예쁜 여자로 변신하는 모티프나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금기 사항과 금기를 위반하고, 즉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우렁각시와 함께 산다는 설정은 모든 이야기 유형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⁹⁾

이 기본형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편들도 많지만, 많은 이야기들은 이 기본형에 내용이 추가되고 확장된다. 그리고 확장된 내용에 따라 <원혼형>, <새털옷형>, <아내내기 시합형>, <지하국 대적 퇴치형> 등으로 유형이 나뉘게 된다. 즉 전반부는 우렁각시와 총각의 단순 결합을 기본형으로 하고, 후반부는 우렁각시의 존재나 미모를 알게 된 원님, 감사 혹은 임금, 도둑왕 등에게 우렁각시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총각은 내기를 통해, 혹은 새털옷을 통해, 혹은 자신이 닦은 실력을 통해 우렁각시를 되찾는 내용들이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첨가되는 것이다. 물론 우렁각시를 되찾지 못하고 총각이 원통하게 죽어 새가 되는 비극적 유형도 존재한다.

확장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자들이 분류해 놓은 유형들을 참고해 보면, 총각이 우렁각시를 빼기고 원통해하다가 죽어 새가 되는 이야기인 ‘원혼형’ 혹은 ‘원망형’이 있고, 임금(원님)에게 우렁각시를 빼긴 총각이 우렁각시의 지혜를 빌려 새털옷을 통해 우렁각시를 되찾고 총각이 임금이 되는 ‘새털옷형’이 있으며, 우렁각시의 미모가 알려져서 임금(원님)에게 우렁각시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조력자(용왕, 우렁각시)의 도움으로 임금이 제안한 내기에서 이겨 우렁각시를 데려오는 ‘아내내기 시합형’이 있

9) 금기를 지킨 이야기 버전도 있다. <우렁이에서 나온 색시>(임석재전집1,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 평민사, 1990, p.70)에서는 ‘며칠 참아 잔치를 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야기에서는 모두 금기를 어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으며, 우렁각시의 존재를 도둑왕이 발견하여 우렁각시를 붙잡아 갔는데 총각이 실력을 길러 직접 도둑왕과 싸워 이겨서 우렁각시를 되찾아오는 ‘지하국 대적 퇴치형’ 등이 있다.¹⁰⁾

유형별로 후반부 서사 단락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원망형>

- ⑧ 총각은 우렁각시를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총각에게 점심을 가져다주는 일을 우렁각시에게 시킨다.
- ⑨ 총각에게 점심을 가져가던 중 우렁각시는 그녀에게서 나오는 빛(瑞氣, 瑞光) 때문에 원님(임금, 감사)에게 발견된다.
- ⑩ 원님이 우렁각시를 데려가고 총각은 그 사실을 알고 원통함으로 죽는다.
- ⑪ 새가 된 총각은 우렁각시를 찾아가고 총각(우렁각시)은 모든 것이 시어머니 탓이라는 노래한다.¹²⁾

<아내내기 시합형>

- ⑧ 우렁각시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서 임금(원님, 감사)의 귀에 들어간다. [우렁각시의 畫像이 바람에 날아가서 우렁각시의 존재를 임금이 알게 된다.]
- ⑨ 임금은 아름다운 우렁각시를 빼앗기 위해 총각에게 내기(장기, 바둑, 말타고 강 건너기, 나무 베기 등등)를 제안한다.
- ⑩ 총각은 우렁각시(용왕)의 도움을 받아 임금을 이긴다.

10) 김문기(2008)의 「<우렁색시> 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이주대학교 석사논문)을 비롯하여 배도식(앞의 논문, 2007), 김종대(앞의 논문, 2018), 유진아(앞의 논문, 2018) 등에서 분류한 유형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대부분 우렁각시와 총각의 단순한 결합을 기본형으로 보고, 이별과 결연의 복합 양상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고 있다.

11) 유형 분류는 전적으로 선행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유진아의 「우렁각시 설화의 결연형 증가와 세속화 양상」(2018, pp.472-473)의 논문에서 정리한 유형 분류를 참고하였다.

12) 이 유형 중에는 이야기에 따라 ‘총각이 새가 되어 원님을 찾아가는데 원님의 담뱃대에 맞아 죽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 ⑪ 총각은 우렁각시를 차지한다.

〈새털옷형〉

- ⑧ 우렁각시의 화상(畫像)이 바람에 날아가서 아름다운 우렁각시의 존재가 임금(감사, 원님)에게 알려진다. [총각은 우렁각시를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총각에게 점심을 가져다주는 일을 우렁각시에게 시킨다. 총각에게 점심을 가져가던 중 우렁각시는 그녀에게서 나오는 빛(瑞氣, 瑞光) 때문에 임금(원님, 감사)에게 발견된다.]
- ⑨ 임금은 우렁각시를 궁궐로 데려간다.
- ⑩ 우렁각시는 총각에게 활쏘기 등의 훈련을 하고 새털옷을 입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한다.
- ⑪ 임금이 우렁각시를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총각이 새털옷을 입고 찾아간다.
- ⑫ 그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우렁각시가 새털옷을 입은 총각을 보고 웃는다.
- ⑬ 임금이 총각의 새털옷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는다.
- ⑭ 총각은 임금의 옷을 입고 진짜 임금이 되어 우렁각시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

〈지하국 대적 퇴치형〉

- ⑧ 총각은 우렁각시를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총각에게 점심을 가져다주는 일을 우렁각시에게 시킨다.
- ⑨ 점심을 가져가던 중 우렁각시는 그녀에게서 나오는 빛(瑞氣, 瑞光) 때문에 도둑왕에게 발견된다.
- ⑩ 총각은 도둑의 소굴에 붙잡혀간 우렁각시를 찾으러 간다.
- ⑪ 우렁각시와 만나게 된 총각은 숨어서 실력을 기른다.
- ⑫ 총각은 도둑왕과 싸워 이기고 우렁각시를 되찾아온다.

기본형인 전반부와 확장된 후반부 이야기를 통틀어 <우렁각시> 설화에 서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요소는 세 부분이다. 첫째, 우렁각시가 총각에게 제시하는 금기 사항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우렁각시는 총각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금기로 제시한다. 둘

째 <우렁각시> 내용이 확장된 후반부 이야기들에서, <아내내기 시험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시어머니’의 존재가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사실 전반부 기본형 이야기에서 시어머니의 존재는 거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가끔 이야기에 따라 총각이 홀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표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총각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야기 후반부에 중요한 서사적 매개 인물로 어머니가 등장한다. 셋째, 우렁각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시어머니’ 외에 ‘소문’과 우렁각시의 모습을 그린 ‘화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임금이나 감사, 원님이 우렁각시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모두 그녀에게서 나오는 빛[瑞氣]인데 이 점도 흥미롭다.

다음 III장과 IV장에서는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시간 금기의 의미와 ‘시어머니’의 존재, 그리고 ‘화상’과 ‘우렁각시의 서기(瑞氣)’ 등을 키워드로 <우렁각시> 설화를 세밀하게 읽어보고자 한다. 이 요소들은 모두 <우렁각시>의 ‘금기와 금기 위반’ 서사 구조 속에 ‘환상성’과 ‘소문’의 모티프를 작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III. 설화에 나타난 환상성과 시간 금기의 의미

금기 화소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설화들은 금기와 금기 위반에 의해 서사가 진행되며 금기를 위반했을 때의 결과는 대부분 ‘돌이 되었다’는 식으로 죽음을 암시하거나¹³⁾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식의 불행 등의 징벌

13) 금기 위반의 결과로 ‘돌이 되었다’는 결과는 이야기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본 행위의 주체자를 돌로 만들어 욕망을 거세한 메두사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장자못> 설화 같은 경우 뒤돌아

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기 화소가 결연과 결합되는 설화에서는 어떻게 서사가 진행될까. 본 장에서는 <우렁각시> 설화를 통해 금기와 결연의 양상, 그 속에 포진되어 있는 환상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고전문학에서 환상성은 신화, 전설, 민담, 이인담, 신선전, 풍유록, 전기 소설 등 다양한 층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 환상은 현실 영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부재한 것이되, 심리적으로는 주체나 향유자의 욕망이 가시화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한다.¹⁴⁾ 구체적으로는 시공간적 측면에서 지하세계나 저승 세계 등 현실 세계에는 없는 시공간을 다룰 때, 인물 측면에서 현실의 인물이 아닌, 즉 범인이 아닌 귀신이나 이인, 이물 등을 형상화할 때 환상성을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우렁각시> 설화는 남녀 주인공 결연 자체가 환상성을 띤다. <우렁각시> 설화에서 주인공 남성은 ‘총각’ 혹은 ‘노총각’ 혹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 등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총각’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총각이라는 호칭은 성년 남자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결핍’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표로서, 결혼을 전제하고 열망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이렇게 결혼의 결핍 상태인 ‘결혼을 열망하는 총각’이 혼자 논에서 일하

본 주체자가 ‘돌이 되었다는 것’은 가족들이 죽어간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 순간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4) 문학에서 환상은 현실적으로는 부재하지만 심리적으로 실제하는 욕망이 가시화되는 지점에서 발생된다. 인간의 욕망은 현실적으로는 망각과 배제의 형식으로 은폐되고 억압되지만 문학의 영역에서는 종종 환상의 형식을 통해 충족과 도피를 추구함으로써 그 실체를 긍정하고 이것의 대립적 해소를 지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환상은 현실적 이데올로기의 전복을 겨냥하고도 한다(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pp.4-5). 이러한 ‘전복성’을 강조한 이는 로즈메리 잭슨이다.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성-전복의 문학』(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1)에서 환상이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던 것들을 ‘전복’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면서 ‘열심히 일해서 누구와 함께 먹나?’라는 탄식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결혼하고 싶다’는 열망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런 탄식에 대해 우렁각시가 “나랑 같이 먹지 누구랑 먹어”라는 대답을 한다. 이는 총각의 열망에 대한 응답이니 당연히 프러포즈에 우렁각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승낙한 것이다. ‘나랑 먹고 살자’는 우렁각시의 짜릿한 유혹은 설화 속 가난한 남성들이 꿈꾸는 환상적 소망을 투영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렁각시> 설화는 결연과 금기 모티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의 차별성을 획득한다.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서 선녀는 결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무꾼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해 결연이 진행된 것과 대비되어 <우렁각시> 설화가 좀 더 환상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렁각시> 설화는 환상성이 발현되는 본격적인 기법으로 이물(異物) 변신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 설화 세계 속 총각을 대변하는 민중들에게 결연은 밥을 함께 먹으며 존재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의 전제조건 같은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총각에게 매일매일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완벽한 여성을 만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설화 세계에서 이물인 ‘우렁이’가 ‘예쁜 각시’로 변신하는 환상적 세계를 설정한다. 예쁜 각시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몸이면서 모든 일(집안일) 척척 처리하는 몸이며 동시에 장차 아이를 생산하는 몸이다. 그런 ‘예쁜 각시’와 결연하면서 벗어날 길 없는 현실을 환상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환상’은 ‘실재적인 것’이나 ‘가능한 것’의 다른 영역으로,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것들이 갖는 제약에 대한 의도적 일탈을 보여줄 수 있다. 우렁이가 어여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낯선 사건이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청년이 예쁘고 완벽한 여자

를 만난다는 것도 사실적이지 않다. <우렁각시> 설화에서는 이런 현실 영역에서 가능하지 않은 모티프를 통해 남성 설화 대중들의 환상적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변신 측면에서 <우렁각시> 설화를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 비교해 보자. <우렁각시> 설화에서 이물인 ‘징그러운 우렁이’가 ‘예쁜 각시’로 변한 것은 그 변신의 간극이 매우 크다. 그런데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경우, ‘선녀’가 ‘사람’이 된 것은 변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 ‘선녀’는 이미 관습적으로 너무 인간화되어 있는 존재로 규정되어 왔다. 날개옷을 입었을 때는 선녀이고, 벗었을 때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신의 간극에서 환상적 성격이 발현된다고 볼 때 기법적인 측면을 통해 환상성을 따져 보아도 ‘선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렁각시’의 환상성이 농후해지는 것이다.¹⁵⁾

이때 현실 영역에서 불가능한 것을 얻는 환상 세계로 진입하는 데는 당연히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우렁각시> 설화에서는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금기가 뒤따른다. 우렁각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이야기에 따라 사흘에서 석 달 혹은 삼 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¹⁶⁾ 이때 때를 기다려 달라는 시간적 상징은 행동적 금기와 상당히 다른 함의를 내포한다. 예컨대 ‘엿보지 말라’거나 ‘손대지 말라’, ‘열지 말라’,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주지 말라’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

15) 인물 형상화 측면에서 ‘우렁각시’의 환상성이 선녀보다 농후하다는 것이다. ‘우렁각시’의 환상성은 후반부에서 그녀가 내뿜는 서기(瑞氣)까지 더하여 환상적 성격을 배가시킨다. 이에 비해 날개옷을 상실한 선녀는 범인 혹은 범인보다 못한 식물적 모습을 보인다.

16) 가끔 이러한 금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도 보인다. 금기가 부재한 이야기들은 금기의 신성성이 사라졌다거나 결연을 바라는 민중적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연구자들은 분석하기도 한다.

적 금기에 비해 상징성이 배가된다.

단군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는 데 100일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렁이’가 새로운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시간을 상징한다고 보여진다. 즉 우렁이 입장에서 이물인 ‘우렁이’에서 완전한 인간 ‘각시’로의 변화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금기는 금기를 지켜야 하는 주체의 욕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총각의 차원에서 보면, 총각의 욕망이 다스려지는 시간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예쁜’ 우렁각시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 아름다움은 시간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총각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위반한다. 금기와 금기 위반의 내용은 주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우회적으로 드러내 주는데 총각에게 부여된 속성상 ‘시간을 기다려달라’는 금기는 위반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호기심이 강한 인물에게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는 금기가 주어진다면 금기의 위반은 예고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결혼의 결핍이 탄식스러운 ‘총각’, 결혼의 욕망을 속성으로 하는 ‘총각’에게 ‘나랑 먹고 살자’며 나타난 예쁜 우렁각시는 총각의 욕망을 순식간에 확장시킨다. 그런 총각에게 몇 달 혹은 몇 년을 참아달라는 금기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총각은 참을 수 없어 달려들어 아가씨의 손을 잡고”¹⁷⁾ “치마 끝을 놓지 않고” “한사코 같이 살자고 졸라댔던 것이다.”¹⁸⁾ 총각은 단 하루의 시간도 더 기다릴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금기는 위반된다.

금기와 결연이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설화들의 경우, ‘금기와 위반’, ‘결연’이 결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금기를 지켜야만 결연을 유지할 수

17) 최인하·엄용희 편저, <우렁아가씨>, 『옛날이야기꾸러미』2, 집문당, 2003, p.174.

18)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 임석재전집 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 I』, 평민사, 1990, p.186, p.191.

가 있고, 금기를 위반했을 시 징벌의 형태가 결연의 실패, 혹은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제건> 설화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서도 금기와 금기 위반, 그로 인한 결연의 해체 등의 요소가 나타난다. 서해 용녀 저민이가 작제건에게 ‘옛보지 말라’는 금기를 두었는데 작제건이 이를 위반하자 저민이가 딸을 데리고 떠나게 되어 부부의 이별로 결말지어진다. 한편 <나무꾼과 선녀>에서는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선녀의 날개옷을 주지 말라는 것이 1차 금기였고, 확장된 이야기에서는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왔을 때 발을 땅에 던지 말라는 것이 2차 금기 사항이었다. 나무꾼은 이 금기를 순차적으로 위반하면서 선녀와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

그런데 <우렁각시> 설화에서 재미있는 점은 금기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형에서는 이미 결연이 이루어졌고, 확장형 내용에서도 시련을 극복하고 우렁각시와 총각의 결연으로 끝맺는 이야기가 많이 채록된다는 것이다.¹⁹⁾ 이는 기본적으로 결연에 대한 설화 향유자들의 열망과 맞닿아 있었지만, 우렁각시 자체가 지닌 환상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무꾼과 선녀>에서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식물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렁각시는 총각과 결연 후에도 ‘특별한 빛(瑞光, 瑞氣)’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비범한 기운이 환상적 배경을 형성하였고²⁰⁾ 이는 곧 우렁각시의 특별함을 상징하는

19) 초창기 채록에는 <우렁각시> 설화 중 ‘원혼형’이 많아 총각과 우렁각시가 이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 채록된 것들에는 결연형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유진아는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중보 사업에서 채록된 것까지 71편의 <우렁각시> 설화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결연형(60%)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유진아, 앞의 논문, p.468).

20) 사실 공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렁각시> 설화는 ‘총각이 일하는 논밭’이나 ‘집’ 등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서 ‘선녀가 사는 천상의 세계’나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오는 지상의 연못’ 등은 현실

것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녀의 특별함은 여러 다양한 유형에서 이별의 시련을 이기는 지혜로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우렁각시> 설화에서 금기 자체도 좀 더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행동적 금기를 위반했을 때는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²¹⁾ <우렁각시>처럼 시간성을 담보로 한 금기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시련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간도 벌 수 있어서 금기 위반이 이별로 끝나지 않고 재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렁각시>에서 이별보다 결연형이 많아진 것은 설화 향유자들의 열망과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우렁각시’ 인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환상성과 이야기 서사력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렁각시> 설화의 환상성은 공간적 측면에서 형상화된 것이 아니라 인물 형상화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다.²²⁾ 먼저 <우렁각시>의 환상성은 변신 설화 자체가 갖고 있는 기법적인 측면에 이미 내정되어 있다. 이물인 우렁이가 예쁜 각시로 변해 가난한 총각과 결연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적이다. 특히나 ‘나랑 먹고 살자’는 우렁각시의 짜릿한 유혹은 가난한 저층 남성들이 꿈꾸는 환상적 소망을 투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총각이 금기를 위반하였지만, 그에 대한 징벌보다는 총각의 행복으로 결말을 내고자

세계에는 ‘없는’ 공간이다. 공간적 측면에서만 보면 <나무꾼과 선녀> 설화가 <우렁각시> 설화보다 더 환상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선녀의 주체적 환상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렁각시> 설화가 좀 더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21) 예컨대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위반하고 돌아봤을 때는 그 징벌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서사 상 자연스럽다.

22) 앞서 지적했듯이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우렁각시> 설화는 대단히 현실적인 공간들, ‘논밭’, ‘집’ 등으로 설정되어 환상적 성격을 찾을 수 없다. <우렁각시>의 환상성은 공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렁각시’에 대한 인물 형상화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각주 15번과 20번 참조).

하는 전승 집단의 이야기 지향점이 결연의 환상성을 지켜준다. 남녀의 결연을 여전히 최고의 해피엔딩으로 생각하여 총각과 우렁각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결연에 대한 민중의 환상에서 오는 것이다.

IV. 설화 속에 숨겨진 ‘소문’ 화소 분석

고전문학은 소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왔는데 특히 설화의 경우에는 설화 그 자체가 소문이기도 했다. 본 절에서는 <우렁각시> 설화 속에 숨겨진 ‘소문’의 속성을 찾아서 그것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렁각시’ 존재 자체가 소문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특히 <우렁각시> 이야기가 확장되는 후반부에서 ‘소문’이 서사를 추동하는 중요한 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겠다.

‘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는 오히려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생기는 강력한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게 한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인간의 본능에 해당되는 ‘호기심’은 위반을 전제로 설정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특히나 <우렁각시> 설화에서 존재의 근원이 다른 생명체가 인간에게 던지는 금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위반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총각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우렁각시와 함께 살게 된다. 금기를 위반한 총각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시련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각의 시련은 ‘소문’과 자신의 어머니(우렁각시에게는 ‘시어머니’)를 매개로 닥치게 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렁각시> 설화를 내밀하게 읽어보면 전체 서사가 소문의 속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논에서 일하다가 우렁이를 발견한 총각이 우렁이를 집에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장소를 살펴보자. 향아리 혹은 독처럼 물과 관련된 곳에 보관한다는 버전이 많지만 이는 후기 채록본들에게 발견되는 것이고, 초기 채록본에는 주로 비단보 혹은 비단 헝겊에 싸서 ‘장농’ 속에 넣어놓는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²³⁾ ‘농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우렁이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으며 숨긴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혼자만 은밀하게 관계를 맺고 싶다는 심리의 반영이라고 보여진다. 이후 총각은 ‘몰래’ 우렁이가 예쁜 여자로 변신하여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본다. ‘몰래 본다’는 것 역시 상대방이나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엿보기 형태이다. 이 역시 우렁이를 ‘농’에 넣어놓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심리이다. 이렇게 총각은 각시가 아닌 ‘우렁이’의 존재를 몰래 숨겨 놓고 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총각이 우렁각시가 제시한 때를 기다려주지 않고 함께 살게 되면서 우렁각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혹은 총각의 ‘아내’로서의 사회적·상징적 기표를 당장 얻지 못하고 여전히 ‘우렁+각시’의 존재로 살고 있다. 게다가 우렁각시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서기(瑞氣)까지 지니고 있어서 총각은 우렁각시를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되고, 집에 숨겨 놓아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총각은 논에서 일하다가 먹을 자신의 점심도 어머니에게 가져오도록 부탁하고 우렁각시는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도록 어머니에게 당부한다.

23) 「우렁에서 나온 각시」(임석재, 『한국구전설화7-전북편 I』, 평민사, 1990, pp.191-194. *1917년, 1918년, 1940년, 1969년 채록); 「螺中美婦說話」(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pp.31-33. *1921년 채록);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임석재, 『한국구전설화7-전북편 I』, 평민사, 1990, pp.188-189. *1933년, 1969년 채록);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색씨」(임석재, 《청파문학》제1집, 숙명여대국어국문학회, 1958) 등 <우렁각시> 설화 초기 채록본에는 ‘장농’으로 나타난다(노제운, 앞의 논문, 2008, p.19 재인용).

그런데 소문은 숨기는 뭘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소문은 의미가 불명확하여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며 관련 정보가 없는 ‘숨겨진’ 상황에서 만들어지기 쉽다. 또한 소문은 사실이나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 그것이 호기심과 재미를 줄 때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²⁴⁾ 이때 소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감추거나 아니면 호기심 주체들에게 신뢰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우렁각시>에서 총각은 아직 ‘우렁이’인 각시를 숨길 수밖에 없는 한편 우렁각시는 그 자체로 서기(瑞氣)를 뿜어내 외부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완벽하게 숨길 수도, 그렇다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소문 발생의 조건 위에서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문의 호기심적인 속성을 고려했을 때 소문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주제 중의 하나는 ‘성과 여성’에 관련된 것이다. ‘성’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동시에 가장 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람들의 강력한 호기심만큼이나 ‘성’은 항상 ‘소문’과 함께 하면서 그 궁금증을 ‘소문’으로 풀려는 경향이 강하다. 성적 이미지가 가득한 우렁각시는²⁵⁾ 숨겨 놓았기 때문에 더욱더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여기에서 소문은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 <아내내기 시합형>에서 우렁각시의 존재는 ‘소문’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 이야기에 따라 ‘소문’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우렁각시의 화상(畫像)이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화상은 총각을 위해 우렁각시가 자신의 모습을 그

24) 이 외에도 불안 상황이나 수용자의 이념적 성향과 잘 맞을 때 소문은 더 받아들이기 쉽다(니콜라스 디폰조 지음, 곽윤정 옮김,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p.59 ; 캐스 선스타인 지음, 이기동 옮김, 『루머』, 프리뷰, 2009, pp.20-36 참조).

25) 유광수, “<우렁각시>를 둘러싼 불편한 시선”, 『월간조선』10월호, 2017.

려준 그림이다. 총각은 우렁각시와 살게 된 후 각시를 너무 좋아해서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 그러자 각시가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을 주면서 일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화상이 바람에 날아가 외부로 우렁각시의 존재가 알려진 것이다.

‘아름다운’ 우렁각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원님이 남편을 불러 각시를 걸고 내기를 하자고 한다. 또한 <새털옷형>에서도 직접적으로 ‘소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역시 ‘화상(化像)이 바람에 날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화상이 ‘바람’에 날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풍문’, 즉 소문의 작용을 암시하는 설화적 장치이다. 꼭꼭 숨겨야 하는 존재인 우렁각시가 ‘소문’을 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새털옷형> 이야기에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풍문의 화소와 함께 등장하여 복합적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서 나무꾼 어머니의 존재가 서사를 복합적으로 이어나가는 매개 역할을 하듯 <우렁각시> 설화에서도 시어머니는 중요한 의미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²⁶⁾ 시어머니의 존재는 ‘소문’이나 ‘화상’과 같은 역할을 하여 우렁각시를 외부에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각은 우렁각시를 누구에게도 표면화해서는 안되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총각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우렁각시를 절대로 밖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부탁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금기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포적으로는 두 번째 금기라고 할 수 있다. <우렁각시> 설화에서

26) <우렁각시> 설화에서 ‘금기의 유무’와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 변이가 나타나는 하지만 두 가지 요소가 서사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미 차원의 소재적 변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장영창, 「이야기의 서사적 변이 연구」, 『우리문화연구』 제59집, 2018, p.227).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금기의 유무’와 ‘어머니의 역할’이 서사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미 맥락상에서는 매우 큰 차이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1차 금기는 우렁각시에 의해 제시된 ‘정한 시간을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총각에 의해 위반된다. 다시 총각에 의해 2차 금기로 제시된 것이 우렁각시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시어머니’에 의해 위반된다.

총각이 1차 금기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성적 욕망 때문이었다. 아름다운 우렁각시가 ‘각시’가 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한다. 총각의 어머니가 2차 금기를 지키지 못한 이유로는 이야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제시된다. 우렁각시가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렁각시가 들에 나간 후에 누렁지를 굶어먹고 싶어서’, 혹은 ‘그냥 가기 싫어서’ 등으로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우렁각시> 설화 확장형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시련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기를 두 차례 위반한 총각은 우렁각시를 잃게 되는 시련을 겪게 된다. 결국 <우렁각시> 설화의 후반부 서사를 추동하는 힘은 ‘소문’과 우렁각시를 집 밖으로 내보낸 ‘어머니’이다.

그런데 <우렁각시> 설화의 모든 유형에서 ‘소문’은 신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원이 힘없는 백성의 아내를 빼앗아 가는 ‘관탈민녀형’ 모티프와 합쳐진다. ‘소문’을 계기로 <우렁각시> 후반부 이야기가 대부분 관탈민녀형 이야기로 바뀌면서 서사상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 <우렁각시> 설화의 전반부가 환상성을 매개로 한 전개양상을 보였다면 후반부는 사회적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총각의 우렁각시를 데려가는 이들이 모두 임금이나 감사, 원님 등으로 나타난다. 우렁각시가 들에서 일하는 총각의 점심을 가져다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도중에 임금(감사, 원님, 사또)의 행차를 만나게 된다. 이때 우렁각시는 숲속으로 숨는데, 여기에서 ‘숨는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우렁

각시는 애초에는 논에서 숨었었고, 총각에 의해 발견된 이후에는 장롱에 숨겨졌으며 총각과 살게 되면서부터는 집안에 숨어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된 우렁각시는 여전히 감사의 행차에 자신의 몸을 숲속(덤불 밑, 논두렁 밑 등)에 숨겨야 했던 것이다.

<우렁각시> 설화의 여러 유형을 막론하여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반드시 우렁각시가 숨어 있는 곳에서는 ‘특별한 빛’, 서기(瑞氣), 서광(瑞光) 등이 비친다고 서술된다. 이는 우렁각시에 대한 소문의 실체가 빛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상치 않은 빛, 상서로운 빛이란 아름다움과 추함의 가치를 넘어서는, 사람이 아닌 우렁이가 지니는 빛이며 그것은 숨겨야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숨겨진 뉘가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은 그것을 탐구하도록 하고, 감사는 서기(瑞氣)를 찾아내 우렁각시를 데려간다.

이야기 버전에 따라 <우렁각시> 설화는 총각이 감사에게서 우렁각시를 되찾아오기도 하지만 <원혼형>에서는 우렁각시를 데려오지 못하고 원통함으로 죽게 된다. 또 이야기에 따라 우렁각시가 감사와 함께 사는 것으로 결론을 맺은 것도 있다. 이는 전승 집단의 두 가지의 상충된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총각이 금기를 위반했지만 행복으로 매듭짓고 싶어 하는 설화 향유 집단은 총각과의 결연으로 끝맺게 된다. 한편 어떤 전승 집단에서는 금기를 위반한 총각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동시에 남다른 빛을 감식할 줄 아는 감사의 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렁각시’ 존재 자체가 ‘숨어야 하는’, 하지만 저절로 발산되는 서기(瑞氣)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존재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소문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²⁷⁾ 특히 <우렁각시> 이야기가 확장되는 후반부에서 ‘소문’이 서사를 추

27) 이러한 <우렁각시> 속의 ‘소문’의 속성이 현대소설로 차용된 작품이 있는데 바로 이동하의 「우렁각시는 알까?」(『우렁각시는 알까?』, 현대문학, 2007, pp.31-51)이

동하는 중요한 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렁각시> 설화는 ‘소문’을 기점으로 사회적 성격을 지닌 관탈민녀형 이야기로 옮겨 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V. 맺음말

<우렁각시> 설화에는 이물교혼(異物交婚), 변신, 금기와 위반 등 다양한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금기와 위반 서사 속에 포진된 ‘환상성’과 ‘소문’을 분석해 보았다. <우렁각시> 설화는 표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특징적이다. 하나는 시간성을 담보로 한 금기 화소이다. 금기 화소가 등장하는 다른 설화들을 보면, 대개 ‘뒤돌아보지 마라’나 ‘열지 마라’,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주지마라’ 등의 행동적 금기가 일반적인데, <우렁각시> 설화에서는 ‘시간을 기다려 달라’는 시간적 상징이 드러난다. 이는 이물(異物)인 ‘우렁이’에서 완전한 인간인 ‘각시’로 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렁각시> 설화가 유난히 환상적인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우렁각시> 설화와 비슷한 모티프들을 차용하고 있는 다른 설화, 예컨대 <나무꾼과 선녀> 같은 설화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확연해진다. 이렇게 <우렁각시> 설화가 유독 ‘환상적’인 이유는 먼저 변신 모티프

다. 이 소설 속 주인공도 설화의 총각처럼 가난하고 결혼도 못 한 인물인데, ‘집에 우렁색시를 숨겨 놓고 있다’는 이상한 소문이 따라다닌다. 주인공에 대해서 ‘누가 ~하더라’는 식의 간접화법과 인용의 인용을 거듭하는 소문의 화법이 구사되며 우렁색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시점에서 서사가 마감된다. 이는 ‘소문’의 속성을 지닌 설화 속 우렁각시를 소설 작품으로 변용·수용한 결과이며, 그만큼 설화 속 ‘소문’의 화소가 의미심장하다 반증이기도 하다.

에 나타나는 기법적 환상성과 우렁각시 자체가 지니고 환상성에서 기인한다. 이물인 징그러운 ‘우렁이’에서 예쁜 여자 ‘각시’로의 비약적 변신은 환상적이며, 끊임없이 우렁각시에게서 발산되는 ‘범상치 않은 빛(瑞氣)’도 환상성을 배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우렁각시와 총각의 결연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설화 대중들의 낭만적 판타지가 환상성을 떠받치고 있다. 환상을 통해 벗어날 길 없는 가난한 총각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며, 이는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것들이 갖는 제약에 대한 의도적 일탈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통로가 되고 있다.

‘환상성’이 <우렁각시> 설화의 표면적인 특징이라면, <우렁각시> 설화의 내포적 특징은 ‘소문’이 서사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렁이는 애초 눈에 숨어 있다가 총각에게 발견된 뒤로 집의 ‘장농’ 속에 숨겨진다. 총각이 우렁이가 예쁜 각시로 변하는 것을 ‘몰래’ 본 이후 총각과 함께 살게 되면서는 집안에 숨겨진다. 외부로 알려질 위협에 처하게 되자 우렁각시는 덩불 속에 숨는다.

‘숨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은밀하게 관계를 맺고 싶다는 심리의 반영인데 이것이 바로 소문의 근원적인 속성이며 소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소문이란 숨기는 뭔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곤 하는데, 이때 소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감추거나 아니면 호기심의 주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우렁각시>에서 총각은 우렁각시가 아직 ‘우렁이’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황이라 숨길 수밖에 없는 한편, 우렁각시는 그 자체로 서기(瑞氣)를 뿜어내 외부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숨길 수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소문 발생의 발판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각의 ‘어머니’와 우렁각시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 ‘화상(畫像)’은 소문을 촉발하는 매개가 된다. 우렁각시를 그린 그림이 ‘바람에 날아갔

다'는 것 역시 바람 같은 '풍문(風聞)', 즉 소문의 속성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또한 설화 속 시어머니는 우렁각시를 밖으로 내보내 우렁각시가 외부에 노출되는 결정적인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문'과 같은 의미 맥락을 잇고 있다.

결국 감추고 싶어 하면 싶어 할수록 우렁각시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된다. 그리고 <우렁각시> 후반부 서사는 이런 '소문(화상, 시어머니)'에 의해 추동된다. 임금이나 감사, 혹은 원님 등에게 우렁각시의 아름다움이 알려지게 되면서 <우렁각시> 후반부 서사가 이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우렁각시> 설화는 이 '소문'을 기점으로 사회적 성격을 띠는 관탈민녀형 이야기로 옮겨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본고는 <우렁각시> 설화를 대상으로 금기와 위반 서사 속에 포진된 '환상성'과 '소문'을 분석해 보았다. 그동안 <우렁각시> 설화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소문'의 화소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우렁각시> 설화는 현대문학에서 시, 희곡, 소설,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변용·수용되고 있다. 이는 <우렁각시> 설화가 그만큼 재미와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여겨진다.

후속연구에서는 고전문학 전공자 입장에서 <우렁각시> 설화의 현대적 수용 양상을 다뤄보고 싶다. 본고에서 다룬 설화 속 '환상성'과 '소문'의 모티프가 차용된 대표적인 현대소설은 송경아의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와 이동하의 「우렁각시는 알까?」라고 생각된다. 송경아의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에서는 설화 속의 '결연의 환상성'이 유쾌하게 전복되고 있다. 또 이동하의 「우렁각시는 알까?」에서는 설화 속에 내포적으로 숨어 있던 '소문'의 화소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내서 서사화하고 있다. 이 소설 작품들 속에서 <우렁각시> 속의 '환상성'과 '소문'이 어떻게 변용·수용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곽현희,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 『한민족어문학』 제83집, 2019, pp.159-197.
- 김명석, 「현대소설에 나타난 이물교구 모티프의 수용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21집, 2007, pp.275-305.
- 김문기, 「〈우렁색시〉 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2008.
- 김영미, 「연암 박지원의 '소문' 활용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108집, 2019, pp.73-99.
- 김영미, 「『강로전』의 서술양상과 소문 활용법」, 『우리문학연구』 제66집, 2020, pp.35-69.
- 김종대, 「〈우렁각시〉에 나타난 옛보기의 의미와 이야기 전개와의 관련 양상」, 『어문논집』 제74집, 2018, pp.69-96.
- 노계운,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연구」, 『어문논집』 제57집, 2008, pp.5-39.
- 니콜라스 디폰조 지음, 곽윤정 옮김,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 로즈메리 잭슨 저,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 박소영, 「『우렁각시』 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제43집, 2014, pp.459-491.
- 박완호, 「우렁각시 고사를 통한 한·중 양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40집, 2008, pp.507-532.
- 배도식, 「우렁각시 설화의 구조와 의미」, 『동남어문논집』 제23집, 2007, pp.29-70.
- 송연주, 「현대소설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의 해체적 양상」,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39집, 2008, pp.339-363.
- 송연주, 「여성소설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와 환상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41집, 2008, pp.283-307.
- 안상훈, 「러시아 민담 〈아름다운 아내〉와 한국민담 〈우렁각시〉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제23집, 2010, pp.687-723.
- 유광수, “〈우렁각시〉를 둘러싼 불편한 시선”, 월간조선 2017년 10월호
- 유진아, 「우렁각시 설화의 결연형 증가와 세속화 양상」, 『동양고전연구』 제70집, 2018, pp.467-493.
- 유형동, 「〈우렁각시〉와 〈돌쇠와 우렁이각시〉의 비교 고찰」, 『어문논집』 제81집, 2020, pp.221-246.
- 이동하, 『우렁각시는 알까?』, 현대문학, 2007.

- 이주영, 「〈포의교집〉의 ‘초옥 서사’ 구성 과정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36집, 2017, pp.115-145.
- 임동권, 『한국의 민담』, 서문당, 1973.
- 임석재전집1,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 평민사, 1987.
- 임석재전집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 I』, 평민사, 1990.
- 장영창, 「이야기의 서사적 변이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59집, 2018, pp.211-238.
- 정인혁, 「소문’과 배제의 윤리-〈銀愛傳〉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제44집, 2017, pp.127-156.
-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최인학·엄용희 편저, 『옛날이야기꾸러미』2, 집문당, 2003.
- 캐스 선스타인 지음, 이기동 옮김, 『루머』, 프리뷰, 2009.
- 한스 J.노이바우어 저, 박동자 외 옮김,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Fantasticity' and 'Rumor' Motif in the
Tale of *Ureonggaksi*

Kim, Young-mi

In the Story of *Ureonggaksi* (Snail-Bride), various motifs of E-mul-gyo-hon (異物交婚, cross marriage of different kinds), transformation, taboo, breach and others facilitated, and under this article, 'fantasy' and 'rumor' found within the narration of taboo and breach are analyzed. On the superficial level, the Story of *Ureonggaksi* is largely perceived in two characteristics. One is the taboo motif secured by human features. When looking into other story tales where the taboo motif emerges, it is generally a case for the behavioral taboo with 'Don't look back' or 'Don't open it' or the like, but in *Ureonggaksi*, it displays the timely symbol in 'Wait for some time'.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it implies a need of time to transform from a different kind in 'Ureong (snail)' to complete human in 'Gaksi (bride)'.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the Story of *Ureonggaksi* is full of fantastic color-tones in particular.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fantasy is multiplied with the technical fantasy appearing in the transformation motif, fantasy available within the *Ureong-Gaksi*, passion for relationship of the main characters of the *Ureong-Gaksi*, and the *Chonggak* (unmarried man), and the romantic fantasy of people in the story tale that supported the foregoing.

The characteristics comprising the Story of *Ureonggaksi* would be the fact that the 'rumor' is the foundation of the narration. *Ureong* was hiding in a paddy field but was hidden behind 'Jangnong (Korean-style closet)' after it was detected by *Chonggak*. After *Chonggak* 'peeped out' that *Ureong* was turning into a beautiful bride, it lived with *Chonggak*

while hiding in the house. 'Hiding' reflects the psychology that it would not want to inform anyone but forge a relationship in secrecy and this is the attribute as the source of the rumor and starting point of the rumor. As it is concealed further, the rumor on Ureong-Gaksi would scatter around more broadly to have king, governor or mayor learn about it that the narration in the later part of *Ureonggaksi* was propelled by the 'rumor'.

This article examined 'fantasy' and 'rumor' positioned in the narration of taboo and breach with the subject of the Story of *Ureonggaksi*. In particular, this article has its implication in that it examined the motif of 'rumor' that had not been spotlighted in the Story of *Ureonggaksi* up to this point and contemplated on how it has been modified and accommodated in contemporary ways.

Key Word : *Ureonggaksi* folktale, taboo and breach, time taboo, relationship, transformation, fantasy, auspicious spirit(瑞氣), rumor

김영미

소속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ijiu98@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05월 25일 투고되어
2020년 0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6월 16일 게재 확정됨.